



청림 계약·지역상생 두 토끼 잡는다

전북교육청, 계약 분야

청림도 향상에 총력전

계약 과정 정보공개 대상

사립학교 포함 전 기관으로

계약 멘토 30명으로 늘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계약업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계약 분야 청림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교육청 최선자 재무과장은 13일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림 계약·지역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계약 과정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계약 과정 정보공개 대상을 기존 공립학교에서 올해부터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으로 확대,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전북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 과정 정보공개에 접속하면 계약사업명에서부터 계약방법, 계약일차, 계약금액, 대금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약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특히 학교 계약업무 지원을 위해 계약 멘토를 30명으로 확대하고, 권역별로 찾아가는 멘토링도 운영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계약업무 질의응답 사례집인 ‘백문백답’을 제작하고, 입찰에 필요한 적격심사 서식을 표준화해 계약 담당자들에게 제공할



‘골든아워를 사수하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3일, 119항공대와 육군부사관학교가 협력해 중증의상환자 발생에 대비한 ‘골든아워 확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과 군 관계자 44명이 참여해, 산악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증의상환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생존사슬 단계를 거쳐 치료 가능한 외상센터로 이송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계획이다.

지역과의 상생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4월 18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교육물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물품 구매 시 도내는 물론 관할 지역 내 업체를 우선 이용하도록 교

육·홍보활동도 강화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계약업무 개선 방안을 시행해 S2B(학교장터) 청림계약 우수기관,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계약실무편람 지방공무원행정연구회 최우수 보고서 선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청림계약으로 전북교육 신뢰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과의 상생이 올해 주요 사업 목표”라며 “청림계약과 ‘지역상생’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올해 도내 모범 청소년은 누구?

전북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후보 모집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접수… 6개 부문서 선발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도 내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청소년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12회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 상은 △효행 △선행 △면학 △예·체능 △국제화 △장래 등 6개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청소년을 선정하여 수여하며, 도내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 대상이다.

수상 후보자는 시장·군수, 각급 학교장,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의 추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추천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다. 접수된 후보자들은 공적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장이 수

여된다.

시상식은 5월 15일 개최되는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의 공적 사항은 도 공식 홈페이지 및 홍보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질 계획이다.

김호식 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전북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도내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전북소식 →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 063-280-2533)으로 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동서도로 관할구역 결정 군산시, 대법원에 소송 제기

지방자치법 규정 따라… 중분위의 김제시' 결정에 대응

지난 2월 21일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심의에서 동서도로의 관할구역이 김제시로 결정됐다.

이에 군산시는 강력히 반발하며,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13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는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 만경강·동진강 하천 중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으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현행 행정구역 결정이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분위에서 제시한 주민생활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의 판단 기준을 고려할 때 군산시의 김제시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김제시의 이익만을 앞세워 결정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주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정부정책인 새만금사업에 늘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김제 모빌리티 특구 맞춤형 인력 200명 본격 양성

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 공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총 3억6,000만원(국비 2억 4,000만원, 도·시군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해 김제 모빌리티 특구 내 재직자 140명과 신규 인력 60명 등 총 200명의 인력을 본격 양성하게 된다.

지난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김제시 지평선2산단과 백구일반산단에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들의 인력 수요를

적기에 충족하고, 특장차 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특구 내 투자 기업들의 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교육 운영은 캠퍼스종합기술원과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자동차융합기

술원이 맡는다. 이들 기관은 설계 및 해석부터 AI·디지털 기술, 현장 중심의 안전 및 품질관리 등 기업이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김제 모빌리티 특구의 주력산업인 특장차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특구 내 기업들이 겪는 인력 채용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김제는 물론 도내 기회발전특구들이 산업 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